

# 장소성의 개념을 적용한 건축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템스 강 복합문화공간 계획안-

최동혁  
가천대학교 건축학과

## A Study of the Architectural Planning Based on the Concept of Sense of Place

### -The Cultural Complex at the Thames River-

Dong-Hyeog Choi

Department of Architecture, Gach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소성의 개념을 건축공간 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설계연구이다. 본 연구의 계획 대상지는 영국 런던의 템스 강으로 강을 따라 이동하고 필요에 따라 강변에 정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소성과 무장소성, 그리고 비장소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템스 강이 갖는 특수한 성격의 장소성을 분석한다. 둘째, 장소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형태, 그리고 사용자의 행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계획개념을 계획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계획요소로 정리한다. 셋째, 정리된 계획요소를 건축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최종 결과물로서의 영국 런던의 템스 강에 부유하는 복합문화공간 계획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건축물의 인식과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상호보완적으로 장소성을 형성한다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획안은 건축물이 위치하는 템스 강의 물리적, 자연적, 그리고 물질적 특성을 건축물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그 자체에 의한 장소성이 아니라 은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속성으로서의 장소성을 구현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architectural design thesis aimed at designing a building at the River Thames in London, which could float along the river and be anchored in the river, in terms of the concept of the sense of place. The proces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First,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concepts of sense of place, placelessness, and non-place were examined and the sense of place of River Thames was analyzed. Second, the architectural planning elements could be applied to architectural design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lace and architecture, form of architecture, and behaviors of peoples. Third, the architectural design concepts and programs were specified based on the planning elements and a cultural complex that floats on the River Thames in London, England was proposed.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he process of formation of a sense of place by the cognition of architecture and people's activity, and this study claimed that the sense of place could be materialized by the metaphorically inherent property of the architecture.

**Keywords** : Cognition of Architecture, Floating Architecture, Placelessness, Sense of Place, Thames River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축물은 3차원 공간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다. 건축

물은 장소를 점유하며, 건축물이 점유하는 장소는 장소가 갖는 이미지와 함께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장소에 대한 느낌이 더해져 그 장소만의 장소성을 만들어낸다. 여기서 말하는 장소성은 물리적 측면에서 건축물

\*Corresponding Author : Dong-Hyeog Choi (Gachon Univ.)

Tel: +82-31-750-8767 email: donghyeog@gachon.ac.kr

Received August 3, 2016

Revised (1st August 25, 2016, 2nd September 12, 2016)

Accepted November 10, 2016

Published November 30, 2016

의 형태와 기능적 측면에서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행위가 포함된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 장소의 독특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이는 장소 혹은 장소성이라는 개념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중첩된 인간의 활동이 축적되어 형성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장소의 정체성은 물리적 환경, 인간 활동, 그리고 의미가 하나의 공통적인 구조를 형성하는 변증법적 연계에 의하여 구조화된다.[1] 건축물의 계획은 자연환경을 포함하여 그 장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특정 장소에 건축물을 계획할 경우, 그 장소의 장소성은 계획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계획개념 혹은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의 계획에 있어 장소성의 개념이 적용된 계획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그 건축물과 그 장소의 장소성을 획득하고 사람들에게 그 장소의 장소성을 건축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온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장소성의 개념을 건축공간 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설계연구로서, 건축계획에서 고려하여야 할 장소성의 개념을 건축계획요소로 치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개념을 건축물 계획에 적용하여, 특정 장소의 장소성이 물리적 실재로 구현된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대상

본 연구에서 건축물이 계획될 대지는 영국 런던의 템스 강이다. 템스 강은 런던의 중심을 흐르는 강으로 런던의 주요 장소를 거쳐서 흐르는 만큼 템스 강은 강 그 자체와 함께 강변의 주요 건축물 및 주변 자연환경을 포괄하는 복합적 의미의 장소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복합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템스 강의 장소성을 건축계획요소로 치환해보고자 한다. 계획을 위한 건축 프로그램은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집회 및 전시공간을 계획하는 것으로 이 구조물은 바지선의 견인에 의해 템스 강 상/하류로 움직일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는다.

### 1.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장소성의 개념과 장소성과 건축물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장소성의 반대개념으로 사용되는 무장소성과 비장소성에 대한 고찰과 건축물과 장소와

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계획요소 및 본 연구의 대상 지인 템스 강의 특성을 바탕으로 템스 강의 장소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3장은 장소성의 개념이 적용된 건축물의 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장소와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물의 형태, 그리고 사용자의 행위의 세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계획개념을 계획안에 적용될 수 있는 계획요소로 정리하였고 이를 건축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한 계획안을 제안하였다. Table 1.은 연구 흐름도이다.

Table 1. Flow of Study

Chapter 1	
<b>Introduction</b>	
Chapter 2	
<b>Theoretical Background of Sense of Place</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ncept of Sense of Place</li> <li>· Previous Researches</li> <li>· Placelessness and Non-Place</li> <li>· The Sense of Place and Architecture</li> <li>· The Sense of Place of River Thames</li> </ul>	
Chapter 3	
<b>Architectural Design Proposal</b>	
Concep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ace and Architecture</li> <li>· Form of Architecture</li> <li>· Behaviors of Peoples</li> </ul>
Chapter 4	
<b>Conclusion</b>	

## 2. 장소성

### 2.1 장소성의 개념과 선행연구 고찰

모든 장소는 그 장소만의 특성을 갖는다. 장소가 갖는 특성을 일반적으로 장소성이라 하는데, 이는 그 장소의 성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장소의 물리적 특성, 이미지, 그리고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행위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에드워드 켈프는 장소란 인간의 모든 의식과 경험으로 구성된 의도의 구조에 포함된다고 정의한다.[1] 이는 공간과 장소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으로 인간의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장소성의 형성요인을 물리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형성구조에 있어서 물리적인 요인을 기반으로 하여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장소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한다.[2] 따라서 장소성이란 인간의 인식과 활동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 건축물을 계획할

때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이 그 장소의 정체성과 궁극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개념과 계획요소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장소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장소성의 개념에 관한 연구와 장소성과 건축물의 관계 및 건축물의 계획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진다. 장소성의 개념에 관한 연구로는 장소성 개념 정립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2]가 있으며, 장소의 본질적 가치에 관한 연구[3]와 장소의 내재적 측면을 벗어나 외부와의 관계에 의한 장소성을 찾고자 하는 연구[4]가 있다. 특히 장소성의 정의 및 개념 연구에서는 학자들이 주장하는 장소성의 정의와 장소성의 형성 요소에 대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장소성의 실천적 연구를 위한 기초적 토대를 제안하였다.[2]

한편 장소성과 건축물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장소성의 개념을 분석의 틀로 하여 기존의 건축물을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김형년(2015), 구만재·이정욱(2013), 신상진·김성욱·전유창(2013), 최기석·구영민(2011), 임현성·김진균(2005)의 연구가 있으며, 장소성의 개념 및 해석을 적용한 설계연구로는 소용수·구영민(2004), 김창모·김인철(2003)의 연구가 있다.

## 2.2 무장소성과 비장소성

장소성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무장소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에드워드 렐프는 무장소성을 의미 있는 장소를 가지지 못한 환경과, 장소가 가진 의미를 인정하지 않는 잠재적인 태도, 양자를 함께 기술한다고 설명한다.[1] 다시 말해 렐프가 사용한 무장소성이라는 개념은 장소성을 상실하여 고유의 장소성을 갖지 못하는 장소, 혹은 아직 특정한 장소성을 획득하지 못한 장소에 적용될 수 있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인류학자 오제는 특정한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생겨나는 관계의 부재, 역사성의 부재, 고유한 정체성의 부재 등의 특징을 지니는 공방이나 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과 같은 장소들을 ‘인간적인 장소’가 될 수 없는 공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비장소’라 부를 것을 제안했다.[5] 오제의 주장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공간은 사람들의 실천적 행위와 개개인의 경험에 의해 매개되는 ‘인간적 장소’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나 이미지에 의한 매개가 중심이 되는 ‘비장소(Non-place)’ 역시 존재한다는 것으로, ‘비장소’란 이미지, 텍스트, 등 추

상적인 매개물만을 통한 상호작용과 지금의 순간만이 존재하는 현재성의 지배를 갖는 공간을 말한다.[5] 따라서 ‘비장소’의 개념은 렐프의 무장소성의 개념과는 달리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소의 특성을 포괄, 혹은 내재하고 있어 그 장소만의 고유의 특성보다는 다양한 가치관에 의하여 동시에 해석, 혹은 적용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구조물, 혹은 건축물이 그로 인한 고유의 장소성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중립적, 혹은 수동적인 자세로 그것이 위치하게 되는 장소의 질서를 따르는 경우에도 ‘비장소’의 의미가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계획개념으로서의 ‘비장소’가 장소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결과로 나타날 때, ‘비장소’이라는 계획개념은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에드워드 렐프는 진정성이라는 판단기준으로 장소성과 무장소성을 평가한다.[1] 그러나 진정성이라는 개념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장소성이라는 개념 역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특정한 장소의 장소성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별적이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오제가 제안한 ‘비장소’의 개념 역시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상대적 관점에서 공간과 사람, 그리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물리적 환경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정 장소의 장소성이 달라질 경우 상대적 관점에서의 공간과 사람,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배경이 되는 ‘무장소’, 혹은 ‘비장소’의 개념은 건축물 계획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할 요소이다.

## 2.3 건축물과 장소와의 관계

장소성을 형성하는 건축물의 계획에서는 건축물과 장소와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따라서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물리적 환경과, 건축물의 형태, 그리고 사용자의 행위 등이 주요한 계획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 2.3.1 건축물과 장소성

건축물은 그 건축물이 점유한 장소의 장소성을 형성한다. 건축행위는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행위이며, 건축물은 사람들의 행동을 담을 수 있는 물리적 장치로서의 장소의 의미를 갖는다. 다시 말해 건축행위는 건축

물에서 장소성을 형성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를 물리적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건축에서 장소성을 형성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부지와 주변상황의 물리적 요소, 자연적, 문화적 요소와의 통합, 다른 장소와의 차별성, 역사적인 요소와의 연계,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따른 의미 생성, 등을 들 수 있다.[6]

### 2.3.2 건축물의 형태

건축물은 하나의 장소를 형성하는 구조체이다. 완결된 구조의 건축물은 내부 조직을 바탕으로 외부로 드러나는 형태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 내부적 구조와 외부로 드러나는 형태가 종합적으로 그 건축물의 장소성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이 그 장소가 갖는 의미를 형태로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건축물은 건축물이 위치하는 장소의 맥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를 가져야 한다. 다시 말해 건축물의 형태는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장소의 정체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특정 장소의 장소성에 대한 해석이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짓는 계획요소의 하나로 고려되어야 한다.

### 2.3.3 사용자의 행위

한편 공간이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인간의 행위는 그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인간의 활동과 공간과의 상호작용은 그 공간의 장소성을 완성시킨다. 따라서 건축물은 인간의 행위를 유도하고 이끌어 낼 수 있는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건축물이 위치하는 장소의 장소성에 대한 해석과 인간의 행위가 그 건축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장소성을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장소성은 인간이라는 주체가 공간이라는 객체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활동과 그에 따른 행위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3] 따라서 공간이 장소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사람의 인식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 건축물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 2.4 템스 강의 장소성

템스 강은 런던의 중심부를 흐르는 강으로 강변을 따라서는 워털루 브리지나 타워 브리지 같은 유명하고 아

름다운 다리와 로열 페스티벌 홀, 내셔널 씨어터, 테이트 모던 등 유명한 건축물이 강을 따라서 위치한다. 템스 강변에는 넓은 배를 정박시켜 뱃으로 사용하기도 한다.[7] 런던에서는 중요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중요한 랜드마크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은 런던의 역사, 문화적 정체성을 이룬다. 또한 중요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경관계획을 위해 모두 27개의 지정경관을 정하고 이를 조망점으로 관리하고 있다. 템스 강 역시 런던의 대표적인 상징물의 하나로 주변 건축물과 스카이라인은 템스 강과 어우러져서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2011년 7월 런던의 경관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런던계획에서 지정한 27개의 조망점 중 템스 강과 관련이 있는 지점은 15개로 런던의 경관에 있어 템스 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8]

템스 강의 장소성은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힘든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런던의 각종 랜드마크가 직접, 간접적으로 템스 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며, 일반적인 대지의 상황과는 달리 자연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 강이 갖는 속성에 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유동성을 갖는 물질의 속성 역시 계획 대상지의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템스 강의 장소성은 강변의 다양한 랜드마크와 관련된 장소가 갖는 각각의 수변경관의 정체성이며, 물이라는 물질의 속성을 포함하는 주변 자연환경의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3. 계획안

### 3.1 프로젝트 개요

본 연구의 계획안은 설계 공모전의 설계지침에 따라 템스 강에 부유하는 건축물을 계획한 것이다. 이 건축물이 가져야 할 기능적 요구사항은 첫째, 자체 동력을 사용한 배가 아니라 바지선에 의해 인양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 하고, 둘째,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어 정박할 경우 강변에서 도보로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셋째, 일정 규모의 내부 공간을 확보하여 다양한 행사를 건축물 내부에서 치를 수 있어야 한다.

### 3.2 계획개념

본 연구에서 건축물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

게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물이 자리를 이동하여 템스 강변의 특정 장소에 정착하였을 경우 그 장소가 갖는 물리적 상황 및 그 장소의 특성, 즉 그 장소가 갖는 장소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 자신이 만들어 내는 장소성이 그 장소가 갖는 장소성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에 대한 건축적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프로젝트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계획요소는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템스 강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하며, 계절의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템스 강의 자연환경에 따라 건축물 자체의 모습이 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획되는 건축물은 다양한 건축물 주변 상황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 3.2.1 건축물과 장소

계획 건축물 주변의 환경특성으로는 정박하는 위치에 따라 변하는 장소가 갖는 물리적 특성,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변하는 자연적 특성, 그리고 강에 부유한다는 점에서 물이 갖는 물질적 특성이 있다. 본 계획안에서는 정박하는 장소의 물리적 특성에 적응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주변의 경관을 변화시키지 않는 중립적 성격을 갖도록 계획하여 장소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이와는 반대로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적 특성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자체의 모습 역시 계절에 따라 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물이 위치하는 장소로서의 물이 갖는 물질적 특성의 관점에서는 건축물로의 접근 과정에서 사용자가 직접 물을 몸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사람의 행위 자체에서 물의 속성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본 건축물을 접하는 과정에서 템스 강이 갖는 기존의 장소성의 맥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오제가 제안한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상대적 관점에서 공간과 사람, 그리고 주변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새로운 ‘비장소’ 개념의 확장된 결과로서의 건축물을 계획한다.

### 3.2.2 건축물의 형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형태는 그 장소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본 건축물은 밖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아니라 주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내재

되어 있는 장소성으로 그 속성이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이 자신의 형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숨김으로서 그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형태에 의한 지각이 아니라 사용자의 인식에 의한 지각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통하여 건축물이 아니라 장소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한다.

### 3.2.3 사용자의 행위

본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본 건축물로 접근하는 행위이며, 다른 하나는 본 건축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 행위 중에서 건축물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계획된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특정 프로그램에 반응하는 보편적 행위이다. 한편 본 건축물로 접근하는 행위는 건축물을 인식하고 인간의 지각능력을 통하여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생성의 과정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주변 자연환경과 물이라는 물질이 갖는 특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통한 장소성의 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Table 2. Formation of Sense of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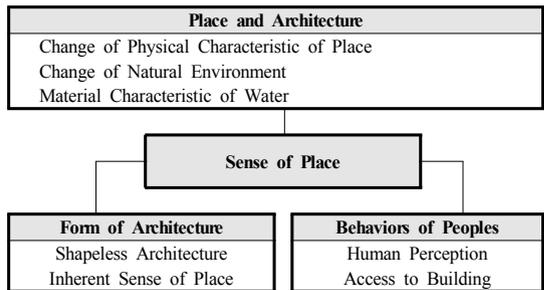


Table 2.는 본 연구에서 논의된 장소성을 구현하는 요소로서 건축물의 형태, 그리고 사람들의 행위의 내용과 장소와 건축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이다.

## 3.3 건축계획

### 3.3.1 건축물로의 접근

본 건축물의 계획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이동하는 건축물이라는 관점에서 장소의 변화에 따른 물리적,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의 행위와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장소성의 완성을 위하여 인간의 지각을 고려한 건축물 인식의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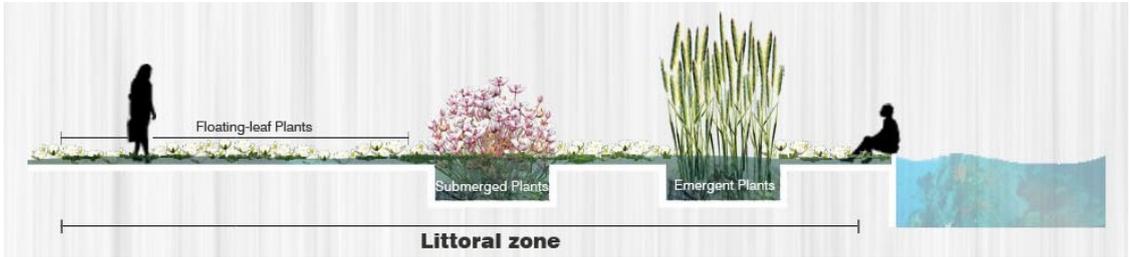


Fig. 1. Pedestrian approach to the facilities at the water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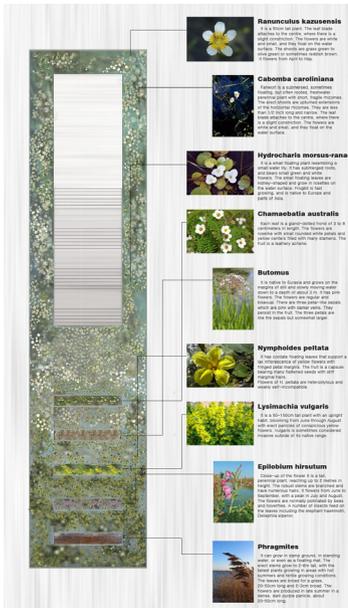


Fig. 2. Types of aquatic plants

Fig. 1.과 Fig. 2. 그리고 Fig. 3. 은 본 계획안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계절에 따른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장치로서의 건축물의 모습을 설명한다. 템스 강변에서 건축물로의 접근은 도보로 이루어진다. 본 계획안에서는 건축물로의 접근 과정에서 건축물이 위치한 장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이동 동선의 레벨을 템스 강 수면의 높이와 같도록 하여 사람들이 이동과정에서 직접 물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건축물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부분은 템스 강의 수면 높이와 같은 레벨로 계획한다. 이는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위치한 장소, 즉 템스 강이라는 물질적 속성을 직접 감각을 통하여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장

Fig. 1.과 Fig. 2. 그리고 Fig. 3. 은 본 계획안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계절에 따른 주변 자연환경의 변화에 반응하는 장치로서의 건축물의 모습을 설명한다. 템스 강변에서 건축물로의 접근은 도보로 이루어진다. 본 계획안에서는 건축물로의 접근 과정에서 건축물이 위치한 장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직접적으로

치이다. 또한 건축물의 이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템스 강의 물리적 환경에 적응하고 기존의 장소가 갖는 장소성에 부합할 수 있는 물리적 상황을 만들기 위한 건축적 장치이다.

건축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이동 동선 이외의 부분에는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건축물의 모습을 갖도록 계획한다. 이는 인공적 환경이라는 건축물이 갖는 물리적 한계를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에 건축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수면위로 드러나는 부분에 식재되는 수생식물은 계절에 따라 각기 다른 수종이 자랄 수 있도록 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하는 템스 강의 자연환경에 자연스럽게 건축물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 3.3.2 건축물의 형태

수면위로 드러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템스 강에 잠겨있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로의 접근로와 수면 위의 수생식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은 강 아래에 위치하여 건축물의 형태는 자연스럽게 물이라는 장소 속으로 사라지고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국 건축물의 형태는 단순하면서도 수면 위 수생식물의 식재에 의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며, 대부분의 시설이 강 아래에 있어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수면 위 주변 환경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환경에 종속되는 개방적



Fig. 3. Color changes of the building according to the sea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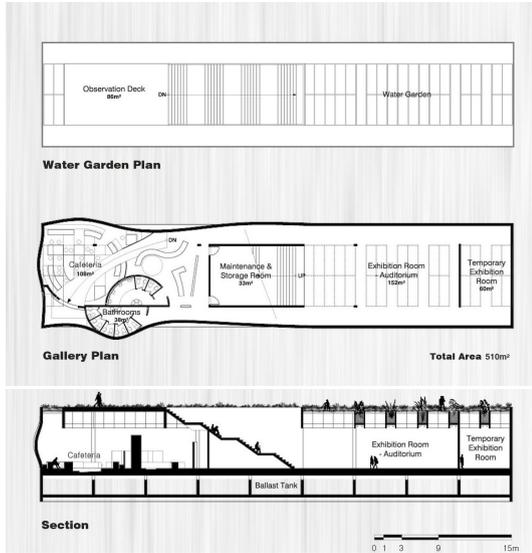


Fig. 4. Floor plans and Section

인 성격을 갖는다. 주변 환경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물 자체가 특별한 형태를 갖기보다는 단순한

형상을 갖는 것이 유리하다. 본 계획안 역시 단순 입방체의 형상의 매스를 기본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내부 프로그램의 기능을 따르는 내외부 시각적 소통을 위한 형태적 변형을 갖는다. 본 건축물은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수생 식물이 식재된 접근로와 템스 강에 잠겨있는 프로그램을 갖는 내부공간으로 구분되며, 건축물 내부 프로그램으로 휴게시설 및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시 및 집회시설로 구성된다. Fig.5.는 계획안 내부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계획안은 선박과 같이 하나의 독립된 구조체로 완결된 형태와 구조를 갖고 있으며, 하부에 위치한 밸러스트 탱크에 물을 채우거나 비우는 방식으로 전체 무게를 조절하여 수면과 일정한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Fig. 6. Fig. 7. 그리고 Fig .8.은 템스 강 주변의 랜드마크와 본 계획안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템스 강을 부유하는 건축물로서의 본 계획안이 템스 강의 자연환경 그리고 주변의 경관에 내재되어 있는 장소적 특성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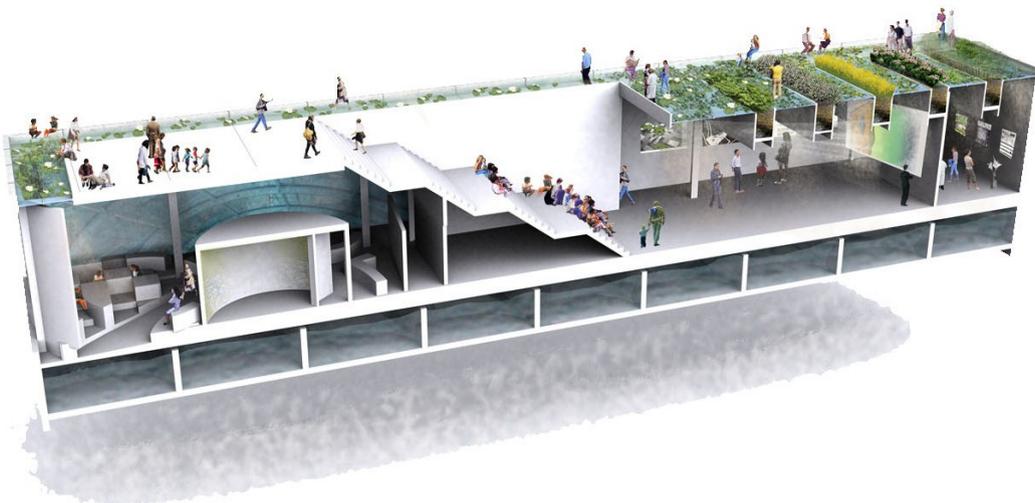


Fig. 5. Sectional perspective



Fig. 6. Floating building with the National Assembly



Fig. 7. Floating building at the River Thames



Fig. 8. Floating building with the London Big Eye

#### 4. 결론

본 연구는 장소성의 개념을 건축공간 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설계연구로서, 건축물과 장소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건축물 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계획개념을 찾고 이를 적용한 계획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계획개념은 건축물의 형태와 사용자의 행위 측면에서의 장소성 형성요인으로 첫째, 건축물의 형태는 그 건축물이 위치하는 장소의 정체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인간의 체험을 통한 공간 인식과 가치 부여가 장소생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람의 인식체계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건축물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계획안에서 중점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것은 건축물의 인식과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상호보완적으로 장소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건축물이 위치하는 영국 런던의 템스 강의 물리적, 자연적, 그리고 물질적 특성을 계획되는 건축물이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계획안은 건축물 그 자체에 의한 장소성을 구축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에 의하여 은유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재되어 있는 속성으로서의 장소성을 구축하는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References

- [1] E.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p. 114, 103, 290, Nonhyung, 2005.
- [2] S. H. Hong, J. S. Park, S. B. Im, Study on the Definition and Concept for Sense of Place, Proceedings of the 2011 Symposium on Korea Landscape Council, pp. 39-52, 2011.4.
- [3] J. Y. Uhr, H. K. Yuh, A Study on Place Value on the Notion Place, Journal of the Korea Planning Association, 45(6), pp. 21-34, 2010.
- [4] S. H. Lim, Theoretical Approach on the Modern Space and Placeness - Focused on Foucault and Lefebvre's discussions of spac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30(6), pp. 185-192, 2014.  
DOI: [http://dx.doi.org/10.5659/JAIK\\_PD.2014.30.6.185](http://dx.doi.org/10.5659/JAIK_PD.2014.30.6.185)
- [5] H. M. Jung, A Review of Studies on 'Non-place' of Marc Auge, Cross-Cultural Studies, 19(1), pp. 107-141, 2013.
- [6] S. J. Shin, S. W. Kim, Y. C. Jeon, A Study on the Formation of Place using Digital Technology,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3(1), pp. 149-152, 2013.
- [7] J. W. Kim, The Thames Riverside Village, The Essay Time, 1, pp. 131-133, 2006.
- [8] J. H. Lee, The Landscape Management Plan for the Image Enhancement of the City of London, Planning and Policy, pp. 86-92, 2012.

최 동 혁(Dong-Hyeog Choi)

[종신회원]



- 1995년 2월 : Pratt Institute, NY, USA (건축학석사)
- 2005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공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가천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건축계획, 건축설계